



사직공원에 퓨마가 나타났어요

마치 실제로 나무를 오르고 있는 듯한 퓨마의 이미지를 사직공원 아트주(Art Zoo, 예술동물원)를 찾은 소녀가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 (주)아트주와 앙림문화사랑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5일부터 8일까지 광주 사직공원에서 40여 종의 동물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2011 아트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징검다리 황금연휴 시작
곳곳 가족 나들이 발길

오는 10일까지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의 첫날이자 어린이날인 5일 광주·전남지역은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놀이공원과 유명산 등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와 광산구청소년수련관이 마련한 제 8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 행사는 종이접기, 풍선아트, 캐리커처 그리기, 천연비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어린이풍물, 마술 공연 등이 이어져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남구 형제사와 신에원에서 어린이날 맞이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려 풍선타프리기와 사탕먹기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광주의 대표적인 놀이 동산인 패밀

리랜드에는 1만5000여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백일장이 열린 중외공원에도 3만여명의 가족 동반 나들이객들이 주를 이뤘다. 무등산 등산로 곳곳에도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등산객들의 발길이 계속됐다.

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 인근은 어린이날 선물을 사러 나온 고객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축제가 이어졌다. 담양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담양 대나무 축제'가 열렸으며, 장흥 득량만과 수문항 일대에서는 '정남진 장흥 키조개 큰잔치'가 열렸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과 순천 팔마보조경기장에서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가 열려 어린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씨푸린 하늘
남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비가 내리겠다.
광주 구름점치량아침 11/21°C
목포 흐림 12/20°C
여수 밤하늘비 12/16°C
나주 구름점치량아침 10/22°C
완도 밤하늘비 11/18°C
구례 흐림 9/21°C
해남 밤하늘비 11/19°C
장흥 밤하늘비 10/19°C
순천 밤하늘비 11/19°C
영광 구름점치량아침 11/21°C
영광 밤하늘비 11/19°C
진도 구름점치량아침 10/24°C
전주 구름점치량아침 11/22°C
남원 구름점치량아침 7/24°C
흑산도 흐림 10/16°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교사도 학교서 담배피우면 벌칙

광주교육청, 울부터 초·중·고 학칙에 제재조항 명시

광주지역 초·중·고 전체 교사들은 울부터 학내에서 흡연할 경우 학칙에 의해 학생과 같이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흡연 교직원들은 물론 비흡연 교직원들도 흡연예방·금연 관련 연수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고 기존 학생 흡연예방 교육은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한 금연 위주 프로그램으로 바뀐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인성복지과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흡연예방사업 추진기본 계획'을 광주 초·중·고에 내려보내 시행토록 했다.

교육청은 학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흡연과 관련한 학

칙을 제(개)정 하도록하고 학교내 학생·교직원 흡연에 대한 벌칙 등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기존 학생 흡연에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직원들도 금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의 교사(敎師)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데 교직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학생흡연을 학교에서 감춰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흡연의 문제점을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금연으로 전환한 것이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금연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 12곳을 지정, 각 200만 원씩 모두 2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흡연·약물 오남용 방지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는 '건강증진학교'를 8곳을 선정,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금연의 날)에는 금연 전문기관에 의뢰해 3박4일 동안 금연캠프도 마련한다.

일선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흡연예방·금연 사업 관련 실무위원회를 설치, 지역사회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예컨대 금연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각 구청 보건소, 금연 전문기관 등의 강사를 학교로 초빙해 강의를 듣는 등 금연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광주의 대표적인 놀이 동산인 패밀

날씨도 '징검다리' 광주·전남·북 10일까지 맑고 2~3차례 비소식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10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2~3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6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 차차 흐려지겠으며 지역적인 영향으로 남해안지방은 늦은 오후에서 밤사이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겠다"고 5일 예보했다.

이번 비는 7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낮에 점차 개겠다. 7일까지 예상강수량은 5mm 내외.

이어 7일 낮부터 8일까지는 남부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끼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부터 10일은 중국내륙에서 다

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9일 오전에 남해안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광주·전남·북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이 비는 10일 밤부터 점차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전통·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어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당부했다.

연휴기간 동안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연휴기간 중 기압골이 통과하는 9일과 10일은 파도가 1~3m로 높게 일어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해야 하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아생화

끈끈이액 내 뿜어 벌레잡는 식물

<13> 끈끈이귀개

끈끈이귀개는 30cm 높기로 자라는 여러해살이 식충식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진도 바닷가 가까운 산 풀밭에 드물게 자란다. 뿌리에서 난 잎은 꽃이 필 때 없어진다. 줄기에서 난 잎은 초승달 모양으로 잎에 난 긴 샘털에서 점액을 분비하여 벌레를 잡는다. 끈끈이귀개는 식충식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채집가들의 표적이 되고 있어, 2005년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박성배 내장식물원 책임사무소 과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본점 062-227-994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환자맞춤형 척추질환치료
순천 서울우리병원
서울우리병원 출신 김정목 병원장
순천시 조례동 1719-5번지 서울우리병원 B/D
대표번호 061) 759-1000